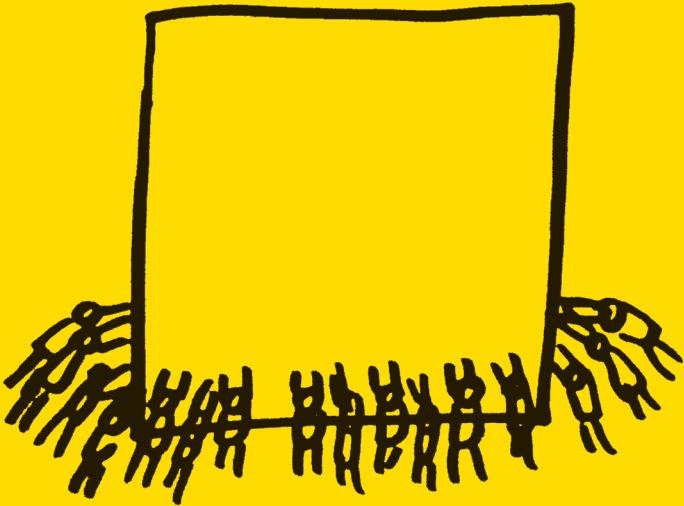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no. 1602

TOTAL



SUPPORT

FOR TOTAL MUSEUM

TOTAL SUPPORT FOR TOTAL MUSEUM

TOTAL SUPPORT FOR TOTAL MUSEUM

기간

2016년 11월 11일 - 11월 14일

오프닝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

주최

토탈미술관

장소

토탈미술관

참여작가

강애란, 고영애, 권순관, 권순철, 김구림,
김기라, 김도균, 김동연, 김봉숙, 김승연,
김일권, 김진희, 노상균, 노세환, 노순택,
노정란, 문형민, 방앤리, 백승우, 선 무,
신기화, 신미경, 신선희, 안규철, 오수환,
원애경, 유선태, 유인수, 이난규, 이동욱,
이동재, 이상현, 이성희, 이수경, 이순중,
이윤백, 이태향, 이호철, 임옥상, 장지아,
정경선, 정보원, 정소연, 제여란, 제유성,
차규선, 천경우, 홍 범, 홍순주, 황규태

토탈미술관

관장 노준의

실장 원윤희

책임큐레이터 신보슬

코디네이터 김은아, 이태성, 정효섭

인턴 임미주

협력

디자인 손혜인

작품설치 김진태

작품운송 미가아트, 정황수

도움주신 분들

이화익 갤러리, 갤러리 시몬,

서울옥션, 오케이바베규

토탈미술관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미술관 후원전시
〈Total Support for Total Museum〉을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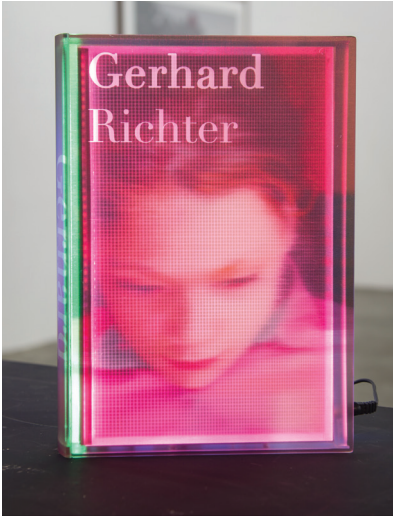
지난 40년간 토탈미술관은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서 예술
전반의 올바른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괄목할만한 전시들을 기획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한중교류전시 〈East bridge 2015-2016 : Plastic Garden〉과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에 접근한 〈디자인 없는 디자인 : design
without Design〉 그리고 프랑스 국립음향멀티미디어창작센터
(GRAME)의 〈듣기 나라의 엘리스 : Through the Listening Glass〉
외에도, 〈로드쇼 2016 : 르완다〉, 〈Playground 2016 : 인도네시아〉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디자인에 대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토탈미술관은 미술 애호가, 좋은 작가, 비영리 미술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후원제도를 정착시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토탈미술관장 노준의



라이팅 북 Lightning Book, 혼합매체, 22×30.5×5.9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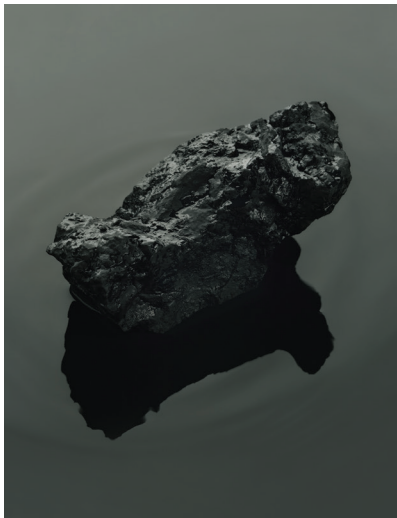
강애란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졸업, 컬럼비아대학 대학원을 거쳐 다마미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이수했다. 작가의 작업에서 변치 않는 주제는 책이다. 책은 인류 역사에서 지식을 상징하며, 디지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성찰을 모색한다. 강애란에게 책의 상징성은 예술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틈을 내는 표현적 질료로서 재해석된다. 그녀는 책을 통해 시학의 잠재력을 지닌 예술적 실천으로 세계를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토탈 서포트전에 출품한 작품은 <라이팅북 Lighting book>(2015)으로, 플라스틱과 LED 광원을 이용해 스스로 빛나게 한 책이다. 강애란은 작품에 끊임없이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있으며, 합성수지, 플라스틱, 유리, 거울과 같은 미학적 매체로서의 투명재료들을 통해 탈물질화를 시도한다.



동상채플, 드뷔시의 바다(프랑스), C-print with Saitec, 65.5×65.5cm, 2005

고영애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독일, 뉴욕 등 20여 개 나라에서 도시와 건축물을 촬영한 작가는 '평범한 사진들 안에서 평범하지 않은 메시지를 독해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평범한 사진 이미지 자체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러시아 지하철에서>(브레송 갤러리), <루이 뷔통의 힘>(가나아트스페이스)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시드니 어포더블 아트페어 Sydney's Affordable Art Fair, 2010 Australia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권순관



장소없는 묘사 - 고뇌로 가득한 사물 #1, Digital C-print,
Photography, 170x230cm, 2016

권순관은 상명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과정을 졸업했다. 작가는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여러 층위에서 맞닿은 힘들의 관성과 전체상으로서의 구성 속에서만 활동적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다. 여러 작업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과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의 세부적 장치가 사물화된 실재성의 핵심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전도된 여러가지를 강조한다. 또한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맥락으로 전환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질서로서의 사실이 갖는 '가치'의 기반을 흔들고자 한다.

권순철



낯 Soul, Oil on Canvas, 53x45cm, 2014

권순철은 서울대학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작가는 민중예술, 리얼리즘의 대표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그의 작품 전면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수많은 붓 자국을 켜켜이 쌓으며 개인이 살아오며 입은 상처를 드러낸다. 대표적인 '얼굴' 시리즈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상처의 누적과 흉터덩어리를 내보이며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번 토탈 서포트전에 출품한 〈Soul〉(2014) 또한 캔버스 위에 차곡차곡 쌓은 십자가를 통해 그에 대한 사색을 작품 앞에 선 사람들의 뒀으로 남겨둔다.

김구림



음양 8-S133, Digital print, acrylic on canvas, 100x80.3cm, 2008

김구림은 1958년 개인전을 통해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69년을 기점으로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위가 된 작가는 그 해 <앵글 362>를 연출했고,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를 발표했다. 전통적인 회화 작업에서 출발한 그는 다양한 매체와 양식을 실험하는 시기를 거쳐 평면과 오브제로 나타난 개념예술을 지나, 해체를 거쳐 통합으로 나아가는 '음양시리즈'를 이어나간다. 이번 토탈 서포트전에 출품한 작품 <음양 8-S133>(2008) 또한 작가가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하는 음양 시리즈의 하나이다. 광고판 등 생활 속 이미지를 프린트한 뒤 그 위에 붓질을 통해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양여성에 대한 대중의 지향을 비판하며 이를 음양시리즈에 삽입했다.

김기라



비기념비적 조각을 위한 드로잉
Drawing for Unmonumental sculpture Project,
합지(한지) 위에 오일 페인팅 Oil painting on
Korean Paper, 110x160cm, 2012

김기라는 경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과를 졸업, 동 대학 환경조각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영국 골드스미스 컬리지에서 파인아트 석사를 취득했다. 작가는 회화, 조각,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작업 등을 통해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 전문가들과 협업을 시도하며 다층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각예술에 접목하여 생각의 노동이 작품화되는 지점을 탐색한다. 이번 토탈 서포트전에 출품한 두 개의 드로잉 작품은 <이념의 무게> 시리즈 중 하나로, 작가의 다양한 매체 작품의 실마리가 되어준 '개념적 드로잉'이다. 작품의 초안으로서의 드로잉이 아닌, 작품의 개념 - 이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한 드로잉인 것이다.

김도균



p.더마 퓨어 클리닉 울트라 브이 리프팅 롤러,
C-print Mounted on Plexiglas iron framed, 50x60cm, 2015

김도균은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마이스터실러와 아카데미브리프에서 수학했다. 평범한 건축물의 인공성에 주목한 <A>시리즈에서부터 <SF>시리즈에 이르는 김도균의 작업에는 일관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우선 그가 선택하는 피사체가 주로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작가는 상상력이 발휘되는 건축물을 선택한 후 가장 스펙터클하고 초현실적인 글을 포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그렇게 선택된 건축물은 각기 그것들의 고유성을 잃고, 가상의 색면 이미지로 재탄생된다. 김도균은 사진은 단순히 건축물 본연의 미학적 효과를 노린 건축 사진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각적,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인 반응의 복합체이기를 바라고 있다.

김동연



무제1 무제2, 브론즈에 컬러, 22x11x12cm(each), 2016

김동연은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수학했으며, 독일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조각가이다. 작가는 환경문제나 생태계 붕괴, 전쟁, 테러 등 지구의 재앙에 대한 폭넓은 메시지를 던진다. 작가는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며 개념의 이중성, 표면적 의미와 숨은 의미의 다름, 의미의 역전, 이중 상징 등으로 이야기한다. 그의 작업 <몬스터>에서는 대역을 내세운 대리화법으로써 의인화의 화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작가는 어린 시절 괴물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존재로 느껴진다며 '정작 무서운 것은 환경 파괴, 전쟁, 기아 등이 만연하는 현대사회'라고 말한다.

김봉숙



Untitled, Acrylic on Canvas, 53x65cm, 2016

김봉숙은 울창한 수림(樹林)을 그린다. 작가는 순도가 높은 강렬한 색감과 거친 붓 터치로 숲을 그려내며,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꾸는 자연을 원시적으로 표현한다. 자연의 움직임은 생동하고 이를 따라 숲은 왠지저절하게 움직인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는, 추상화된 숲은 '색 언어'로 이야기하며 작품 안에서 그 느낌을 생생하게 실어낸다.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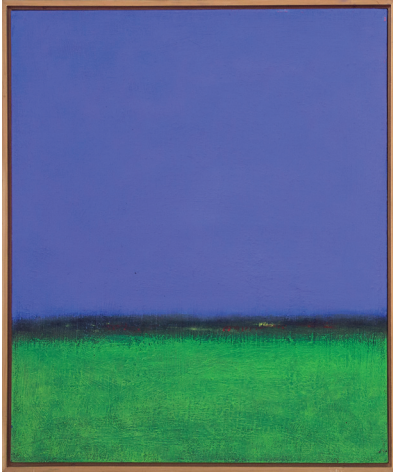
Night Landscape-9406, 동판화(Mezzotint), 78.8x54.5cm, 1994



Night Landscape-200132, 동판화(Mezzotint), 78.8x54.5cm, 2014

김승연은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 뉴욕 주립대 대학원에서 판화와 서양화를 전공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판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가는 철저한 사실을 바탕으로 형상에 대한 새로운 추구로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한편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동판화 메조틴트 기법으로 제작한 야경 시리즈는 서울과 한강변의 화려한 밤 풍경을 극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일상의 그리고 익명의 것들은 또 다른 사실의 풍경으로 재해석 된다.

김일권



2015.06.15., Oil on Linen, 73x54cm, 2015

김일권은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예술공학 박사과정, New York Academy of Art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했으며, New York Art Student 미술학교, 뉴욕시립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현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가는 구상화된 풍경과 추상을 접목해 마치 수평선이나 지평선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풍경을 재현한 것이 아닌, 절제된 형태와 색을 통해 작업을 지속한다. 작가는 자신을 그림을 그리는 자가 아니라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 한다. 그의 작품 대부분에서 보이는 단순하고 함축적인 표현은 구상적 미니멀리즘의 기후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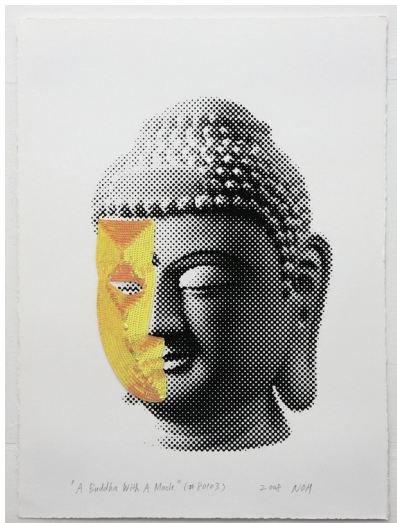
김진희



April-001,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위에 자수(Embroidery on Digital Pigment Print), 120x153cm, 2014 (에디션 제작 2015)

김진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여성들의 숨겨진 내면과 감정, 기억에 집중한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왔으며 인물들의 관계와 기억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며 작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바느질을 더하는 방식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담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상균



A Buddha with a Mask, Sequins and silkscreen on paper,
76x56cm, 2008

노상균의 시퀀 작업은 90년대 초부터 물고기를 모티프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는 뉴욕 플랫폼 인스티튜트 유학 후 귀국한 1994년부터 본격적인 자신만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평면성을 극복한 감각적 구성을 통해 키치적 재료인 시퀀을 세련된 하이 아트(High Art)로 만들어낸 작가의 여정은, 삶과 죽음의 기표로 시작된 물고기가 얼굴 없는 마네킹으로 빚들어 소외된 인간상으로 구체화되는 필연적 과정으로 이어진다.

노세환



똑같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파프리카,
pigment print, 100x150cm, 2014

노세환은 2005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2011년 런던 슬레이드 미술대학원에서 Fine Art Media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인사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 <외눈박이 초록신호등>을 시작으로 갤러리 마노, 고바야시 갤러리, 표 갤러리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했다. 사람들이 메스미디어를 접하는 자세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사진뿐 아니라 조각, 회화,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해오고 있다.

노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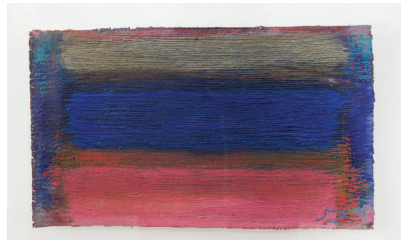
검은깃털 - # 아담담수 정세균 강기갑 문국현 그리고 노회찬,
장기보존용 안료프린트, 108x72cm(6점), 2009

노순택은 길바닥에서 사진을 배웠다. 배우긴 했는데, 허투루 배운 탓에 아는 게 없다.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몰라 헤맨다. 학동시절부터 북한괴뢰집단에 대한 얘기를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터라 그들이 대체 누구인지 호기심을 품어왔다. 나이를 먹고 보니, 틈만 나면 북한괴뢰집단을 잡아먹으려드는 우리는 대체 누구인지 호기심을 하나 더 품게 됐다. 분단체제가 파생시킨 작동과 오작동의 풍경을 수집하고 있다. 사진기로도 줌 손으로도 주워 왔는데, 주워 온 것이 무엇인지 몰라 한참을 생각한다. <분단의 향기> <알웃한 공> <붉은 틀> <좋은 살인> <비상국가> <망각기계> 등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고, 같은 이름의 사진집을 펴냈다.

노정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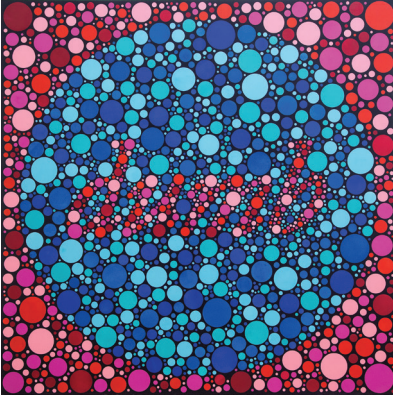
Color play Sweeping 8-3, Acrylic on Canvas, 21x37cm, 2008



Color play Sweeping 8-4, Acrylic on Canvas, 21x37cm, 2008

노정란은 1948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중에 미술특기로 수석입학하여 수승인 화가 윤명로를 만났다. 이후 이화여대 서양화과에서 재학하며 전국 대학생 미전 은상을 수상,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과 함께 남관 화백의 추천으로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최초의 개인전을 가졌다.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미술석사를 취득하고, 후에 Distinguished Alumni Award를 수상했다. 지난 40여 년 간 30여 회의 개인전과 50여 회의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선재미술관, 아라리오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문형민



Dumb, Acrylic on Wooden Canvas, 150x150cm, 2008

문형민은 패서디나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작가는 세상의 각종 이미지를 수집하고, 변형하거나 합성하는 과정들을 통해 이미지가 재구성되는 것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는다. 주요 대상으로는 도시, 일상의 기호, 상품의 시각 이미지이다. 각자의 이미지가 작가의 의도에 맞게 '공동화'되어 새롭게 재구성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방앤리



Hanging on your every word(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 너의 모든 약속을 매달며), 거울, 강화유리, 펠트 60x80x2.5cm, 10KG, 2014

방앤리(Bang & Lee)는 방자영과 이윤준으로 구성된 2인 컬렉티브로 뉴 미디어, 디자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설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퍼포먼스를 동반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설치를 시작으로 키네틱 라이트, 만질 수 있는 세라믹 악기를 이용한 작업에서 가변적 스크린플레이(variable screenplay)에 의한 데이터 프로세싱과 앗상블라주, 비디오 모자이크 영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 부조리한 상황이나 모순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주제는 역사적 자료와 허구적 속성을 통합하여 우정과 협업의 개념을 재해석한 설치로 반영된다.



Utopia-#11, Digital Print, 150x205cm, 2008

백승우는 중앙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2002년부터 런던에서 활동해왔다. 2006년 <휴스턴 포토페스트> 포트폴리오 리뷰에서 '6명의 미래스타'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2016 올해의 작가상> 최종 4명 후보에 올랐다. 2010년 파리 퐁피두 센터와 미국 산타바바라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에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대비시킴으로써 사진 매체의 속성을 탐구하고, 사진 영역의 틀을 넓히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백승우의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변형과 재구축을 통해 '실재(real)'와 '실재가 아닌 것(unreal)', '보이는 것(visible)'과 '보이지 않는 것(invisible)' 사이에 숨겨져 있던 세계의 틈새들을 포착한다.



흡연(Smoke), Paper, 55x40cm, 2016

선무는 1997년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선무'는 가명으로 선이 없다는 뜻을 가진다. 주요 작업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등 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작업이다. 그의 작품에는 빨간 수건을 목에 맨 소년단 아이들의 얼굴이나, 북 그림에 등장하는 심볼들이 자주 등장한다. 작품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붉은색과 파란색은 기본속성을 넘어 그것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특징 그리고 그것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논한다.

신기화



김용사, Archival Pigment Print on Canvas, 80x80c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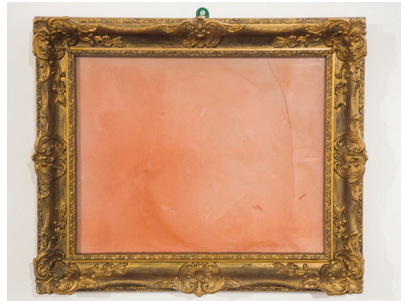
봉은사, Archival Pigment Print on Canvas, 120x84cm, 2016

신기화는 가톨릭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상명대 사진미학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 가나아트센터 서울옥션하우스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는 한국의 사찰과 주택을 여행하며 그 기둥에 쓰인 시(時)를 찾고 기록한다. 오래된 기둥을 따라 세운 시 한 수는 기둥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언어의 여백과 함께 지붕을 엮고 집을 짓는다. 첫 번째 개인전 <마음心>에서 작가는 그의 여정을 통해 수집된 한자어 心을 보인다. 心은 세 개의 점과 하나의 선으로 만든 형태에 표정을 담으며, 외피만 보여주는 사진에서 시간과 공간의 레이어를 드러낸다.

신미경



Painting Series_35, 비누, 프레임, 57x36x5.5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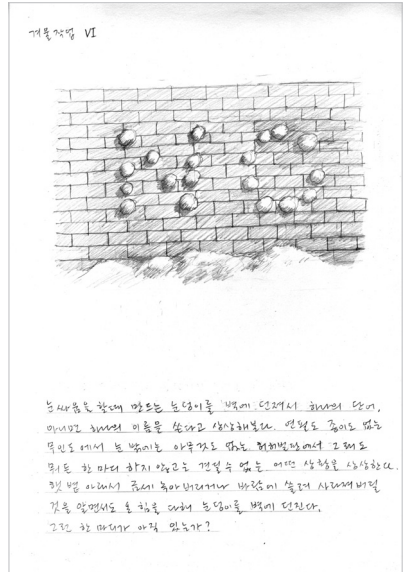
Painting Series_48, 비누, 프레임, 62.5x52.5x9cm, 2014

신미경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런던 슬레이드 미술대학원에서 조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역사적 유물과 예술품을 비누를 이용해 현재의 관점에서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 질문하며, 다양한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문맥에 대한 경험을 비누 조각으로 '번역'함으로써 이를 드러낸다.



무제, 종이에 펜, 수채화, 32x35cm, 2016

신선희는 이화여대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대한민국 미술협회, 대한민국 수채화작가협회, 수채 늘 그림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수채화로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작가의 주요 대상은 한옥으로, 한옥의 전체 모습을 담아내고 각각의 방과 문의 모습을 세세하게 표현한다. 작가는 단순히 집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인 수채화 기법을 바탕으로 한옥에 깃든 사람들의 기억과 흔적들을 작품에 드러낸다.



겨울작업 VI, 종이에 연필, 45x59.5cm, 2012

안규철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소재로 사유와 성찰을 통해 미술의 경계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제기해 왔다. 그는 조각물의 양감, 질감, 표면 미감에 소홀한 채 실체가 없는 것, 세상에서 외면해 온 이미지들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조각 외에도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집을 축조하는 등 작품들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미술과 건축의 소통을 추구한다. 작가의 작업은 장르와의 구분을 거부하며 미술과 비미술의 구분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와 성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수환



Untitled, Gouache on paper, 78x109cm, 2010

오수환은 동국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가는 한지가 아니라 캔버스 위에, 먹이 아닌 유화로 작업하지만 그 결과물은 검은 선의 흔적을 통해 마치 서예를 보는 듯 한 느낌을 준다.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원시예술과 아동미술 등 그 모든 것과 교류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서양화를 가장 동양적으로 활용하는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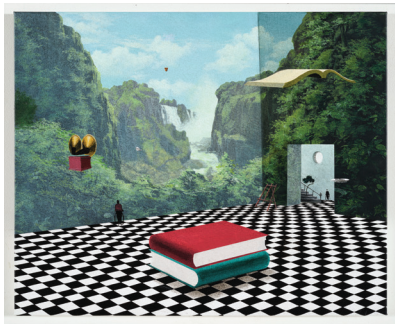
원애경



재생성(Regeneration), 유리(Glass), 40x38cm, 2015

원애경은 홍익대학교 예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작가는 인간의 내면적 형태와 자연의 원초적 원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에 관련된 폭넓은 세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가의 작업 속 형상들은 현실과 환상 사이의 단순함과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인간의 관념과 한계를 은유적으로 암시한다.

유선태



말과 글(풍경) The Words-Landscape, Acrylic on Canvas, 64.5x53cm, 2014

유선태는 홍익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파리 국립 8대학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을 밟았다. 오랜 유학 생활을 보내면서도 동양화에 심취해 있던 작가는 장르와 시공간을 넘어 특유의 감성을 녹여낸 초현실적 이미지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과, 책, 액자, 사다리, 거울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재해석해 회화와 입체의 차원을 왕복하고 서로의 접경을 탐색하는 작업들은, 초현실의 무대적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융합을 시도한다.

유인수



도시의 일상, Acrylic on Canvas, 94x76cm, 2015

유인수는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디종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작가는 도시의 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화폭에 담아낸다. 작품 속 도시의 모습은 꿈꾸는 자와 꿈을 잃은 자의 표정, 욕망과 절망의 몸짓 등 이중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동시에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 그리고 허무를 내보인다.

이난규



집, 나무 등, 25×34×28cm, 2016

이난규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작가는 남한강 유역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적인 소재에 관심을 가졌다. 강물의 떠내려온 나무들을 오브제로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안에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과 집 등을 생동감 있게 그려넣음으로써, 과거 그리고 과거와 호흡하는 생명력을 표현한다. 작가의 작품세계는 자연적인 소재를 새롭게 구현하는 조형미를 추구한다. 작가에게 '집'이라는 존재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는 매체가 아닌 생명력을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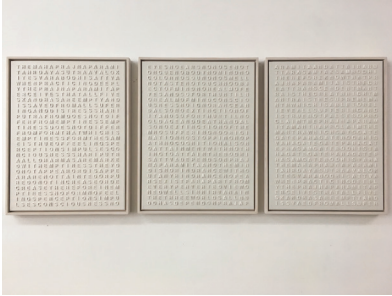
이동욱



모두 다 예쁜, 혼합매체, 16×16×36cm, 2016

이동욱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작가는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많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으로 본인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나열한다. 주로 작은 크기의 인체나 돌들에 다양한 오브제를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수집하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의 모습이 작업에 녹아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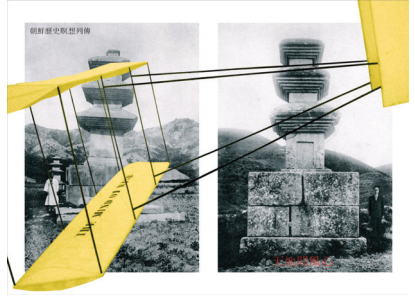
이동재



Text, textured_The Maha Prajna Paramita Hrdaya Sutra,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레진 오브제, 41x32cm(3점), 2016

이동재는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작가는 초기 작업에서 작품 속 인물의 이름이나 실생활 등과 연관된 오브제를 통해 일상적인 오브제가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준다. 재료로 사용된 쌀, 콩, 팥 등은 언어유희적으로 사용되며 재료의 물성에 기반을 둔 상징적인 작업으로 변모한다. 최근 알파벳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재료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초기 작업과의 유사성에 텍스트의 힘을 더한다. 토탈 서포트전에 출품한 작가의 <Text, textured_The Maha Prajna Paramita Hrdaya Sutra>는 텍스트 자체가 주는 표현력이나 화면의 질감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용하는 오브제로 인해 부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상현



더블 미디어이션, Pigment print, Diasec, 110x150cm, 2004

이상현은 베를린 국립조형미술대학(HdK) 조소과 졸업, 동 대학원을 졸업하며 Meistershuler 취득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역사명상열전” 연속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상영되는 <조선신연애 Korean New Romance>(49.05mins, 2015)는 한국근대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이수일과 심순애, 두 남녀의 연애와 배신의 서사를 분석하며 ‘현대 한국사회의 영혼이 어떻게 돈에 지배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작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달은 차고 이지러지다”에서 설치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성희



Melody of light 2, 캔버스 위에 자개, 안료, 45.5x53cm, 2012

이성희는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했다. 이후 뉴욕스튜디오회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작가는 전통공예의 소재인 자개를 사용해 작품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회화의 현대적 감각과 전통의 만남을 내보인다. 돌가루 성분인 글라스라는 현대적 재료와 자개의 성분인 칼슘의 자연원료의 비슷한 지점, 그리고 그 두 성분이 가지는 대립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며 그사이의 혼합을 시도한다.

이수경



Translated Vase 2015 TVG 1000-S 5-3, 도자파편, 에폭시, 24K, 금박, 4.5x5.5x2.5(h)cm, 7x5.5x8.5(h)cm, 4x4x1.5(h)cm, 10.5x11x9.5(h)cm, 10x9x8.5(h)cm, 2015

이수경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프랑스 니스에서 Villa Arson Residency Program에 참여했으며 뉴욕 브롱스미술관과 Apex Art, 한국 씬지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수경은 조각, 설치, 영상, 회화, 드로잉,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동양성을 나타내며, 미술을 통한 치유의 기능을 제시한다. 작가는 깨어지고 버려진 도자기 파편들에 주목하며 이를 조합해 기존의 전형적인 도자기 형태가 아닌, 작가에 의해 새롭게 변형된 도자기로 만든다.



바위, 그리고 나무, 종이에 펜, 91×71.5cm, 2016



바위, 그리고 나무, 종이에 펜, 91×71.5cm, 2016

이순중은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고,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조각 전공으로 M.F.A를 받았으나 대학원에서 평면을 부전공하면서 입체와 평면을 함께 다루었다. 1990년 동승동의 토탈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설치 방식으로 조각의 전통 소재인 돌, 나무, 브론즈를 쓰지 않고 혼합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해왔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평면 회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Angel Soldier(Reloaded), 렌티큘러 필름, 110×81.3cm, 2016

이용백은 한국 미디어아트 대표작가다. 그는 1966년 김포에서 태어나 1990년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1993년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조형 예술대학 회화과, 1995년 동 대학 조소과 연구 심화 과정을 졸업한 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1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되었고, 2014년 독일 라이프치히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한국 특유의 정치 문화적 쟁점과 함께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시각화하여 독자적인 틀을 구축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이태향



Nostalgia, Oil on Canvas, 72.5×72.5cm, 2016

이태향은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으로 한국과 독일에서 수학하고 콘서트 무대와 강단에 섰다. 작가는 유학 시절 유럽의 도시를 여행하며 모티브를 가져온 옛 성채와 성당, 중세 건축의 야경을 화폭에 담아낸다. 일련의 <노스텔지어>시리즈 연작에서, 작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후 나이프를 이용해 긁고 덧바르는 기법을 통해 어두운 듯 예스러운 중세 건축의 특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호철



무제, Oil on Canvas, 혼합재료, 160×130cm, 2016

이호철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거쳐 동 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0년 금호미술관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노화랑, 표갤러리, 아라리오, 선화랑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제 Impact Art Festival(일본, 경도(京都)), 제8회 JAALA(Tokyo, Japan), 한국현대회화 50년 조망전(서울 갤러리) 등 국내외 단체전에 150여회 참여했다. 그의 그림에서는 닫혀 있는 세계와 열려 있는 세계의 묘한 함수관계 같은 것이 암시되고 있다. 사람이나 틀의 이미지는 닫힘과 열림의 경계에 있는 하나의 문지방 역할을 한다.

임옥상



응덩이 2016, 캔버스 위에 흙, 91×73cm, 2016

임옥상은 197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86년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원 졸업 후 '십이월전'과 '제3그룹' 동인으로 활동하며 민중미술작가 1호라는 호칭을 얻었다. 1979년에는 '현실과 발언' 창립동인으로 활동하며 기존 미술과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작품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광주교육 대학 교수(1979-1981)와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1981-1992)를 역임한 후 1993년부터 94년까지 민족미술협회 대표를 지냈으며, 2000년대 이후 문화개혁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 평화예술인국제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2011년 현재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과 사단법인 문화우리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장지아



인두질된 풍경 Seared Landscape, 소가죽에 인두질, 220×200cm, 2012

장지아는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디어아트 전문사를 졸업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것에 대해 작업하며 퍼포먼스, 영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품으로 구현한다. 작가는 사회적 시간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로서의 몸을 다루기보다는 몸의 내적 깊숙한 부분, 감각체계로서의 몸을 다루고 있다.

정경선



가방시리즈-코발트 블루, 가죽, 2016

정경선은 이화여대 미술대학 장식미술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공예학과에서 가구디자인을 공부, 석사 졸업했다. 작가는 가족으로 가방을 만들고, 자개로 작은 소반을 만든다. 소낙비가 내린 후의 특별한 정원을 상상하는 그의 정원에는 각종 열매와 꽃, 들꽃, 나무들이 가득하다. 그 특별한 정원은 예쁜 가족을 만나 가방으로 다시 탄생한다.

정보원



Untitled 14-12, CG Graphic on Paper, 120x120cm, 2014

정보원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1973년 파리에서 프랑스 국립 장식학교를 졸업했다. 작가의 작업은 전통적인 기하학적 색채추상화에 그 맥락이 닿아 있다. 다양한 길이와 폭의 직사각형들이나 원이 이루는 추상화들은 칸딘스키의 작업을 연상하게 하나, 작가의 대상들은 오히려 묵직하게 가리았으며 건축적인 단단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Neverland - Sky, Oil on Canvas, 90.9×72.7cm, 2015

정소연은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마치고 뉴욕에서 커뮤니케이션 아트, 공과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귀국하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사진과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며 최근에는 회화에 주력하고 있다. 작가는 〈Neverland〉시리즈의 회화 작업에서 도감에서 차용한 이미지들을 토대로 작업하며, 현실 불가능한 기호의 숲으로서 기호가 실재를 대치하는 현대 사회의 하이퍼리얼한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2-Usquam Nusquam, Oil on Canvas, 110×110cm, 2014

제어란은 198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1988년 동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같은 해 윤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이후, 2016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14번째 개인전 〈그리기에 관하여〉를 개최했다. 작가는 30여년 간 붓이 아닌 스퀴지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그리기를 시도하며 시대의 유행을 뒤쫓기보다 자신의 미감을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 작가가 그려낸 작품은 추상회화와 구상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태가 없는 형태를 자아낸다.

제유성



The Flying, Oil on Canvas, 80x80cm, 2016

제유성은 1987년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89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의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F.A of San Francisco Art Institute에서 수학했다. 작가는 이종구조, 차이, 진실, 생성과 소멸, 조우, 다른 세계로의 여정, 보이지 않는 것 등 실존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여러 가지 '마음 풍경'으로 표현해낸다.

차규선



풍경, Mixed media on canvas, 194 x 140cm, 2015

차규선은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작가의 작업은 자신의 고향인 경주에서 기인하며, 아크릴과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하늘, 산, 나무 그리고 꽃 등 자연의 기운이 담긴 풍경을 화폭에 담는다. 작가는 안료와 흙을 섞고 지지대에 밀착될 수 있도록 접착제를 넣어 자신만의 칼칼하고 담백한 흙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흙은 캔버스 표면 위에 저절로 인공 빛깔을 가라앉히며 우리에게 익숙한 모노크롬의 평면을 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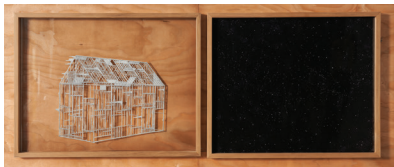
천경우



Being a Queen #6, C-print, Diasec with alu-dibond,
150x115cm, 2007

천경우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후 독일 부퍼탈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석사학위를 이수한 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활동했다. 작가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흐릿한 포트레이트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개념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럽과 한국을 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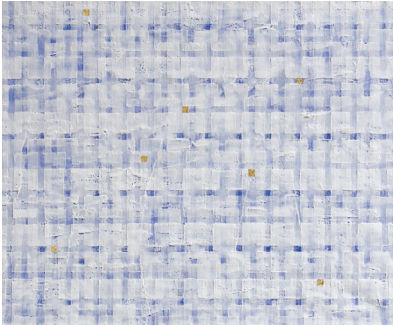
홍범



The Shelter for abandoned dreams #1, #2 (좌, 우),
Water color paper, Ink, Pencil, 60x45cm, 2013

홍범은 1995년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를 졸업하고 뉴욕의 School of Visual Arts에서 2003년에 컴퓨터 아트, 2005년에 사진 영상학을 석사 졸업했다. 안도 파인아트(2010, 베를린), 토탈미술관(2009, 서울), 사루비아 다방(2007,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학교재(2010, 서울)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홀(2009, 코펜하겐), 그랑팔레(2009, 파리), 웨스트포토아트센터(2006, 미국)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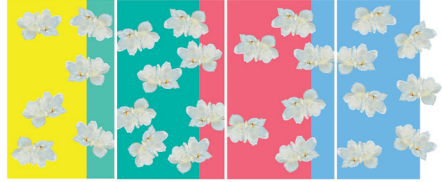
홍순주



겉, 한지, 먹, 색채, 72×60cm, 2010

홍순주는 동덕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 전통 보자기에 담긴 한국인의 미의식을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무수히 반복되는 붓질의 집적과 융합을 통해 구축되는 그의 작품 화면은 그 자체가 일정한 형이상학적 사변성을 보인다. 작가는 조형이라는 작위와 수용성 안료 특유의 분방한 무작위의 성질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균형을 이뤄냄으로써 수묵 담채화처럼 맑고 명쾌한 화면들을 만들어낸다.

황규태



꽃들의 외출, Pigment print, 60×100cm(each), 2012

황규태는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경향신문 사진기자와 미주 동아일보 대표를 역임했다. 사진기자로 재직하며 다큐멘터리 흑백사진으로 작업을 시작한 황규태는 196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사진의 한계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개척해나간다. 극단적인 풍요와 황폐로 뒤덮인 미국 서부의 세기말적 풍경과 컬러현상소 암실기사로 일했던 당시의 환경은 그의 작업에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진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선구적 행보를 시작한 황규태는 현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